

연등회 문화재 예고

27일 3년 노력 끝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서
조계종 환영 논쟁...“세계문화유산 인정 위해 노력”

불교계 대표적 무형문화인 연등회(燃燈會)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월 27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회의를 열고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등회는 앞으로 30일간 지정 예고가公示되며 이 기간 동안 특별한 결격사유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중요무형문화재로 확정된다.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소식에 조계종은 대변인 정만 스님(기회실장) 명의의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 정만 스님은 “문화재청의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연등회 문화재 지정 예고는 연등회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연등회보

존위원회의 전승의지를 인정해준 계기이며 세계에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오래전부터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계종은 이번 지정 예고

불교계 전승의지 인정 등 전통문화 인식 변화 결과

를 불교 무형문화재의 계승과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조계종은 연등회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 4월 문화재청 조사위원단이 현장조

사를 실시했으나 같은 해 7월 결국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부결됐다. 이후 종단은 연등회 국제학술대회, 특별좌담회 개최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거듭된 노력에도 연등회의 지정이 보류되자 조계종은 정부의 전통문화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연등회는 2000만 불자들의 서원과 함께 2012년 1월 27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산고 끝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자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불교계 내부의 더 많은 관심과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만 스님은 논평에서 “이번 지정 예고를 계기로 연등회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통을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박기범 기자 smk2@hyunbul.com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과 108인 여성불자 가운데 80여 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종단을 외호하고 부처님 정법을 실천하는 신실한 우마이로서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여성불자 108인은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여성불자 108인의 긍지를 살려 교류 협력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퍼뜨리겠다”고 선언했다. **박재환 기자 wanihollo@hyunbul.com**

범어사 주지 선거 ‘돈봉투’ 의혹 파문

KBS 등 보도...총무원장스님 범어사 찾아 선거 일정 논의

“쇄신 계기 삼자” 한 목소리

2월 27일 예정된 범어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KBS와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에 보도돼 조계종이 크게 당혹하고 있다.

KBS와 한국일보는 1월 25일 보도를 통해 부산 범어사 주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일부 스님들이 투표권을 가진 스님들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16일 범어사 주지 선거 후보들을 불러 금권선거를 금지하는 서약을 받고, 금권선거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호법부 차원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종단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금권 선거 의혹이 알려지자 교계단체들은 철저한 진로 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근원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27일 총무원

장 지승 스님은 부산 범어사를 찾아 주지 후보 예정자 및 범어사 중앙총회원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선거 일정 조정 등을 논의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과 종단 선거법 강화를 주장했다.

같은 날,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만초)도 성명서를 통해 종단 차원의 엄단과 관련자들이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

님은 “결사추진본부는 이번 일이 결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범어사 선거 등 종단 내 각종 선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각 종 포털과 뉴스 사이트에 댓글을 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한 누리꾼은 “부처님 제자 행세를 하며 목에 힘주고 가면쓰고 행세하는 자는 모두 승복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국민 지탄 직시...선거법 개정 촉구

교구본사주지協, ‘KBS 보도’ 강력 대응 주문

범어사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종단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행)는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범어사 돈봉투 의혹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엄단을 촉구하고, 종단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범어사 돈봉투 의혹으로 범어사에 지탄 받는 현 상황을 직시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범어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해 총무원이 주지대행을 파견하자는 강경안도 언급됐다. KBS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성토하는 발언도 나왔다.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범어사 보도를 보고 조계종 탈종까지 생각했다. 이번 기회에 선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종단은 물론 불교계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집행부에 도움을 줄 것은 주고 꾸짖을 것은 꾸짖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873호 CONTENTS

종합	2
조계종 총무원 신년하례 진주 성전암 복원불사 다시 시작	
대견사지 중창 대견사의 역사와 의미 ‘폐사지’ 왜 중요한가	3
시방세계 한미음과학원 교사직무연수	5
기획연재 2013 대불연 50돌	13
비구니 지도자를 만나다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15

연등회는... 연등(燃燈會)은 번뇌와 무지로 어두운 세상을 지혜와 깨달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 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을 등(燈)을 밝혀 봉축하는 불교전통의식이다. 불가에서는 지혜의 상징인 등불을 부처님 앞에 바치는 연등공양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연등회는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했다. 이후 성종 때 유학자들의 강한 반대로 일시 폐지했다가 1010년(현종 1)에 다시 실시했다.

연등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도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파일 연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에 그 기록이 전한다. 연등축제는 해방 후 조계사-종로 4가-을지로-시정-안국동-조계사를 한 바퀴 돌았다. 1996년부터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렬을 비롯한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 대동 한마당 등 행사가 추가되면서 종합적인 축제로 발전했다.

디지털로도 성철 스님 만난다

탄신 100주년 행사 풍성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성철(1912~1993)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올 한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최근 “2012년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이 사회에 끼친 영향 모색과 문화이콘으로 스님을 새롭게 조명하는 사업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지난해 4차례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스님의 사상과 수행법을 중심으로 학술행

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철 스님의 생애를 정리한 <성철 큰스님 행장>, 스님의 법어에 사전을 곁들인 <본래 눈을 뜨고 보면> 등 서적들은 2~3월 중 출간을 앞두고 있다. 특히, 스님의 일화를 어린 이 눈높이에 맞춘 동화도 5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3월 8일~6월 3일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유품, 유품, 사진 등이 전시된다. 서예가이자 전각가인 김양동 화백이 ‘성철스님의 법어 서화전’ 개막을 앞두고 있다. 가을에는 박대성 화백이 성철 스님의 행적지와 초상을 수

묵으로 그린 전시회를 개최한다.

백련불교재단은 성철 스님의 사상과 IT기술과의 소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단은 스님의 일대기 등을 플래시 애니메이션, 비디오 클립,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만날 수 있다.

성철 스님의 행적지를 돌아보는 순례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개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영주 한 알에 담긴 지극한 부처님 말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 108 산사순례

선묵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떠나는 길!
9년, 대장정의 소회를 스님이 직접 남긴 생생한 기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 108산사순례 | 선묵해자 스님 저음 | 352쪽 | 윗갈라리 | 값 15,000원 | 아람단청 |

아람단청